

韓國襖衣와 中國襖衣와의 文獻的 比較研究

建陽大學校 自然科學大學 衣裳學科
專任講師 劉寬順

目 次

I. 緒 論	V. 斂衣의 比較
II. 襖衣 種類의 比較	VI. 結 論
III. 襖衣의 衣次와 色의 比較	參考文獻
IV. 襖衣의 치수·形態·使用法의 比較	ABSTRACT

I. 緒 論

人間이 태어나서 거쳐야만 하는 마지막 儀禮인 죽음에 대한 節次로서의 喪禮는 四禮 중에서 어느 儀式보다도 정중하게 치름으로서 重要하게 여겨왔다.¹⁾²⁾³⁾⁴⁾⁵⁾⁶⁾

특히 우리 祖上들은 人間의 죽음을 現世에 한정된 종말로 보지 않고 來世에 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關門의 意味로 보았기 때문에⁷⁾⁸⁾ 死者를 극

진하게 厚葬하여 死者에 대한 尊敬과 推仰을 나타내었으며,⁹⁾ 엄격한 儀禮를 예법대로 정확하게 갖추어 진행하면서 孝親의 情을 儀禮로 表示하고, 祖上崇拜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였다.¹⁰⁾¹¹⁾¹²⁾¹³⁾

그런데 儒敎의 영향으로 孝를 중히 여기던 朝鮮朝에서는 禮에 대한 研究가 활발하였으며, 中國으로부터의 많은 禮書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禮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朱子의 家禮가 전해져서 지배계층에서 준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 儒式에

- 1) 李樹鳳, 百濟文化圈域의 喪禮風俗과 風水說話研究—湖西·湖南地方을 中心으로—,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6. p. 9.
- 2) 崔喆·韓玉洙·白弘基, 太白의 禮俗(下). 江原道, 江原日報社, 1977. p. 171.
- 3) 呂重哲, “韓國近代社會의 民俗變化”. 韓國史學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史學研究室, 1980. p. 335.
- 4) 劉寬順, “우리나라 襖衣에 關한 研究—朝鮮朝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p. 6.
- 5)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 研究. 一志社, 1988. p. 301.
- 6) 趙孝順, 服飾. 대원사, 1996. pp. 101~102.
- 7) 白英子, 韓國의 服飾. 경춘사, 1996. pp. 464~465.
- 8) 임재해, 傳統喪禮. 대원사, 1996. pp. 8~15.
- 9) 李種恒, “우리 民族의 喪禮와 祭祀에 關한 研究”. 論文集(人文科學編). 第 9 輯. 國民大學校, 1975. pp.132~134.
- 10)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螢雪出版社, 1989. p. 147.
- 11) 何聯奎, 中國禮俗研究. 臺灣, 中華書局, 中華民國 72. p. 85.
- 12) 高福男, “죽음—來世의 永生의 根源 回歸思想”. 論壇. 淑大新報. 1981. 5. 28.
- 13) 劉寬順, “韓國 綵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第 17 號. 韓國服飾學會, 1991. p. 169.

의한 禮制가 確立되기에 이르렀고, 朱子의 家禮에 根據한 著書가 200여 종류나 간행되는 결과를 招來하였다.¹⁴⁾¹⁵⁾

그 결과 朱子의 家禮를 바탕으로 내용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 다르게 행하기도 하였고 (家家禮), 그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은 李紱의 四禮便覽이다.¹⁶⁾¹⁷⁾¹⁸⁾¹⁹⁾²⁰⁾²¹⁾²²⁾

따라서 喪禮 중 死者의 衣服인 襚衣에 있어서도 中國의 襚衣가 韓國의 襚衣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文獻을 통하여 韓國 襚衣와 中國 襚衣의 內容을 比較 分析하여 襚衣 比較의 基礎資料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本研究의 目的을 둔다.

分析內容은 襚衣의 種類, 衣次, 色, 치수, 形態, 使用法, 斂衣 등의 內容을, 이미 發表된 研究者의 論文의 內容(註 4, 13, 21)에 根據하여 文獻에 提示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比較하였으며, 中國의 禮書로는 「家禮」, 「儀禮」, 「大明集禮」, 「文公家禮儀節」 등을 中心으로 하였고²³⁾²⁴⁾²⁵⁾²⁶⁾, 韓國의 禮書는 「四禮便覽」, 「喪禮備要」, 「家禮輯覽」, 「家禮源流」, 「家禮增解」 등을 中心으로 하여²⁷⁾²⁸⁾²⁹⁾³⁰⁾³¹⁾ 比較 研究하였다.

Ⅱ. 襚衣 種類의 比較

各 文獻에 나타난 韓國과 中國의 襚衣의 種類를 比較하여 보면 <表 1>과 같다.

中國의 襚衣의 種類인 大帶, 深衣, 袍襖, 汗衫, 袴, 襪, 勒帛, 衾肚, 幅巾, 充耳, 幘目, 履, 握手, 冒, 掩 등의 品目이 韓國 襚衣의 種類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그대로 영향을 주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朝鮮時代 儒學者들이 「家禮」를 중히 여기고 이를 準用하기에 힘쓴 데서 基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襚衣의 衣次와 色의 比較

<表 1>에서의 襚衣의 種類를 中心으로 하여, 文獻에 나타나 있는 衣次와 色을 比較하여 보면 <表 2>와 같으며, 韓國과 中國 文獻의 각 內容에서 다루어진 共通 品目으로 幘目, 充耳, 掩, 握手, 履, 冒 등이 있다. 다른 品目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이나, 文獻에 각각의 內容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한 品目들에 한하여 比較·

14) 趙孝順, 前掲書. 1996. p. 101.

15)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p. 80.

16) 金斗憲, “五服制度의 研究”. 震檀學報. 第 5 卷. 1936. P. 43.

17) 李正玉, “韓國의 四禮服飾에 關한 一研究”. 研究論文集. 第 8 輯(自然編). 嶺南大學校, 1974. P. 402.

18) 朴聖賢,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服飾. 第 19 號. 韓國服飾學會, 1992. P. 12.

19) 張哲秀, 韓國傳統社會의 冠婚喪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P. 11~16.

20)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8. PP. 5~6.

21) 劉寬順, “中國 襚衣의 文獻의 考察”. 服飾. 第 25 號. 韓國服飾學會, 1995. PP. 105~107.

22) 임돈희, 祖上祭禮. 대원사, 1996. P. 8.

23) 朱熹 編, 家禮.

24) 鄭玄 注, 賈公彥 疏, 儀禮.

25) 太祖 撰, 大明集禮.

26) 丘濬 輯, 文公家禮儀節.

* 23)~2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本임.

27) 李紱 編, 四禮便覽.

28) 申義慶 著, 喪禮備要.

29) 金長生 輯, 家禮輯覽.

30) 俞榮·尹宣舉 撰, 家禮源流.

31) 李宣朝 著, 家禮增解.

〈표 1〉 文獻에 나타난 褙衣 種類의 比較

나라 文獻	韓 國					中 國					
	喪禮備要	家禮輯覽	家禮源流	家禮增解	四禮便覽	家禮	大明集禮			文公家禮 儀節	儀禮
							唐	宋	庶人 (唐, 宋)		
頭衣	幅巾 網巾 幘目 充耳	幅巾 網巾 幘目 充耳	幅巾 幘目 充耳	幅巾 幘目 充耳	幅巾 網巾 幘目 充耳 掩 纒	幅巾 幘目 充耳 掩	幘目 充耳	幘目	幘目 充耳	幅巾 幘目 充耳	幘目 纒 掩
表衣	深衣 褙複	團領 褙複 帖裏	深衣	深衣	深衣 褙複	深衣			深衣	深衣	
上衣	汗衫 袍襖	汗衫 袍襖	汗衫 袍襖	汗衫 袍襖	汗衫 袍襖	汗衫 袍襖			汗衫	汗衫 袍襖	
下衣	單袴 袴 勒帛	袴 勒帛	袴 勒帛	袴 勒帛	單袴 袴 勒帛	袴 勒帛			袴	袴 勒帛	
腰帶	大帶	大帶	大帶	大帶	帶 小帶	大帶			大帶	大帶	
裘肚	裘肚	裘肚	裘肚	裘肚	裘肚	裘肚				裘肚	
手衣	握手	握手	握手	握手	握手	握手	握手	握手	握手	握手	握手
足衣	襪 履	襪 履	襪 履	襪 履	襪 履	襪 履			襪 履	襪 履	
其他	冒	冒			冒 舉布	冒				冒 衾	帽

* 위의 表는 喪禮備要(1648). 卷上. 張 5~7., 家禮輯覽(1685). 卷 4. 張 17~19., 家禮源流(1715). 卷 6. 張 19~20., 家禮增解(1824). 卷 3. 張 74~77., 四禮便覽(1844). 卷 3. 喪禮 1. 張 9~12., 家禮(朱熹<宋>編: 刊年未詳). 卷 4. 喪禮 1. 張 5., 大明集禮(1369). 卷 37. 張 2, 42., 文公家禮儀節(1626). 卷 4. 張 5., 儀禮(鄭玄<漢>編: 刊年未詳). 卷 12. 張 2의 記事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으며, 以後에 提示되는〈表 2〉도 上記 文獻의 記事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음.

考察하고자 한다.

幘目的 衣次는 中國과 韓國이 帛이나 絹으로 같고, 色은 中國은 紺이 緇, 안이 纁이며, 한국은 紺과 안의 색이 緇와 纁, 緇와 纁으로 中國과 같이 紺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이다.

充耳의 衣次는 中國에서는 繭이고, 韓國에서는 繭이나 絹으로 거의 비슷하며, 色은 흰색으로 韓國과 中國의 內容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掩은 中國에서는 衣次가 帛이고, 韓國에서는 纁이며, 色에 있어서 中國의 경우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韓國에서는 黑色으로 되어 있다.

握手는 衣次가 中國에서는 帛이나 熟絹이고, 韓國에서는 帛이나 絹이다. 色에서도 韓國과 中國이 紺과 안이 纁과 纁, 緇와 纁으로 紺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履는 衣次가 中國은 布인데 비해, 韓國은 紵, 糊

紙, 絹, 布, 襜紙 등으로 中國보다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 色에 있어서 中國의 경우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韓國은 黑色을 나타내고 있다.

帽은 衣次가 中國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韓國은 紬나 絹이다. 色에서는 中國과 韓國 모두 質은 검은 色, 殺는 붉은 色이었다.

Ⅳ. 襖衣의 치수·形態·使用法の 比較

앞 장에서 前提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도 < 表 2 >의 內容에서 幘目, 充耳, 掩, 握手, 帽을 中心으로 論하였으며, 形態의 제시는 文獻上으로 比較 가능한 幘目과 握手는 韓國과 中國의 것을 제시하였고, 그 외의 品目은 韓國의 것만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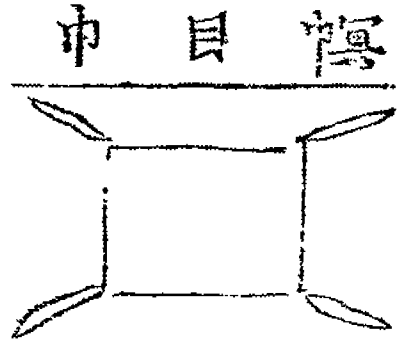
幘目の 치수는 中國은 方尺 二寸과 方尺 五寸의 경우가 있었는데, 韓國은 方尺 二寸의 경우만을 나타내었다.

中國의 幘目인 < 圖 1-1 >과 韓國의 幘目인 < 圖 1-2 > ~ < 圖 1-3 >의 形態를 比較해 보면, 끈의 形態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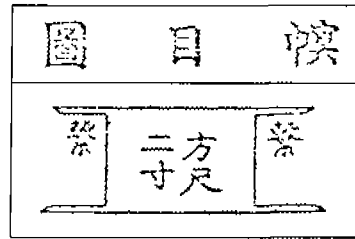
幘目の 使用法은 韓國과 中國이 모두 幘目の 안에 숨을 두며, 四角에 끈을 두어 머리 뒤에서 맨다고 하여³²⁾³³⁾³⁴⁾³⁵⁾³⁶⁾³⁷⁾ 中國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充耳의 치수는 대추씨만한 크기로 韓國과 中國의 內容이 동일하였다. 充耳의 形態는 < 圖 2-1 > ~ < 圖 2-2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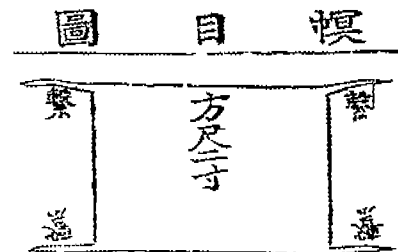
掩의 치수는 韓國과 中國 모두 廣終幅 長五尺으로 동일하고, 使用法에서도 양쪽 끝을 갈라서 착용하는데, 뒤의 두 가닥은 턱 아래에 매고, 돌아서 앞의 두 가닥은 목 뒤 가운데에 매는 것이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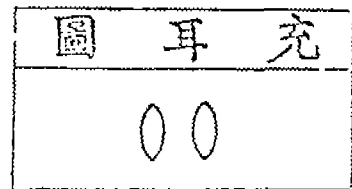
< 圖 1-1 > 幘目 (文公家禮儀節, 卷4, 張33)



< 圖 1-2 > 幘目圖 (四禮便覽喪圖)



< 圖 1-3 > 幘目圖 (喪禮備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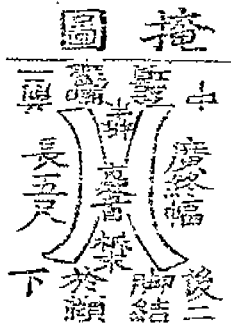


< 圖 2-1 > 充耳圖 (四禮便覽喪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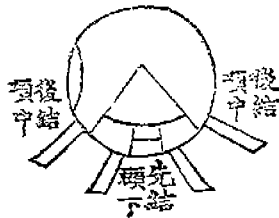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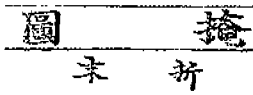
32) 四禮便覽. 卷 3. 喪禮1. 張 10.
 33) 喪禮備要. 卷上. 張 6.
 34) 家禮增解. 卷 3. 張 75.
 35) 家禮. 卷 4. 喪禮 1. 張 5.
 36) 儀禮. 卷 12. 張 2.
 37)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5.



〈圖 2-2〉充耳圖 (喪禮備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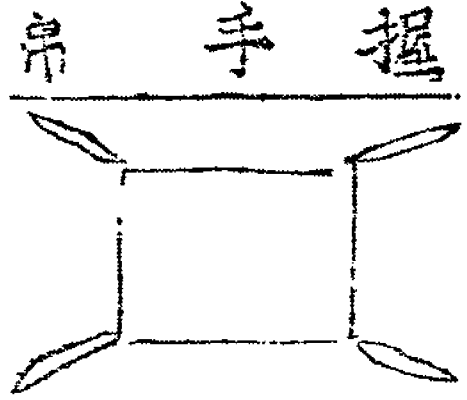


〈圖 3-1〉掩圖 (家禮增解. 卷4. 張 28)



末 折 〈圖 3-2〉掩圖 (家禮輯覽圖說)

동일하다.³⁸⁾³⁹⁾⁴⁰⁾⁴¹⁾



〈圖 4-1〉握手 (文公家禮儀節. 卷4. 張33)

掩의 形態는 〈圖 3-1〉~〈圖 3-2〉와 같다. 握手の 치수는 長 尺 二寸, 廣 五寸으로 韓國과 中國이 모두 동일하였고, 使用法에서도 양 끝에 끈이 있어 손을 싸서 묶게 되어 있는 점이 동일하였으며⁴²⁾⁴³⁾⁴⁴⁾, 韓國과 中國 握手の 形態인 〈圖 4-1〉~〈圖 4-3〉에서 볼 수 있듯이, 끈의 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帛의 치수는 中國의 경우 質은 손까지 오는 길이이고, 殺는 길이가 3尺이거나, 발을 가린다고 한 데 비하여, 韓國은 質과 殺가 모두 7尺으로 中國의 경우보다 길이가 길다.

使用法에 있어서는 下體를 싸는 것인 殺로서 발을 싸서 올리고, 후에 上體를 싸는 것인 質로서 머리를 싸서 내린다고 하여⁴⁵⁾⁴⁶⁾ 韓國과 中國이 동일하다.

帛의 形態는 〈圖 5-1〉~〈圖 5-4〉와 같다.

38)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10.

39) 李滌, 星湖僿說, 卷5.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Ⅲ. 教文社, 1982. p. 329.

40) 家禮. 卷4. 喪禮1. 張5.

41) 儀禮. 卷12. 張2.

42) 家禮. 卷4. 喪禮1. 張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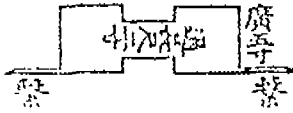
43) 文公家禮儀節. 卷4. 張5.

44)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5.

45) 家禮. 卷4. 喪禮1. 張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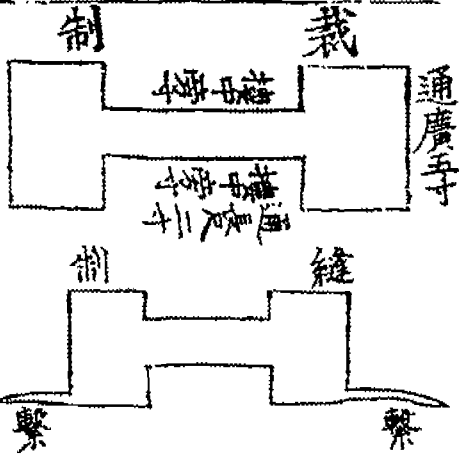
46) 李選 著, 芝湖集. 卷6. 參照. 朝鮮總督府中樞院,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 朝鮮印刷(株), 1944. p. 1784.

圖 手 握



<圖 4-2> 握手圖 (四禮便覽喪圖)

圖 手 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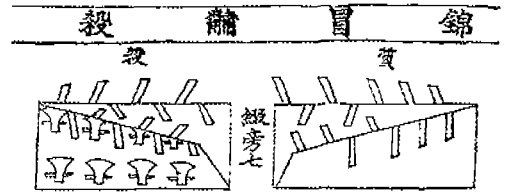


<圖 4-3> 握手圖 (喪禮備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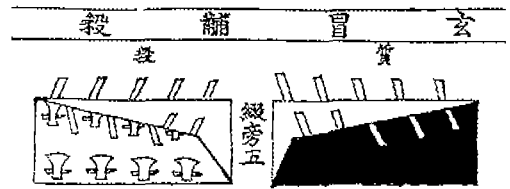
V. 斂衣의 比較

韓國과 中國의 斂衣(尸身을 싸는 것⁴⁷)에 관한 內容을⁴⁸⁾⁴⁹⁾ 比較하여 보면 <表 3>과 같다. 衣와 衾과 絞 등을 사용하여 尸身을 正正으로 正正것 모시는 절차인 小斂, 大斂과 관련하여, 稱, 絞, 斂日, 斂具 등을 중심으로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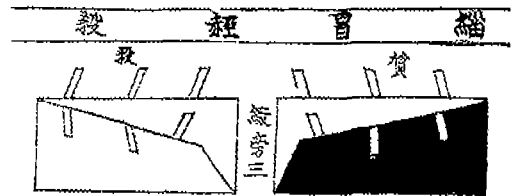
小斂에 對하여 보면, 小斂日은 中國과 韓國에서 모두 죽은 다음날에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小斂具



<圖 5-1> 錦冒黼殺 (家禮輯覽圖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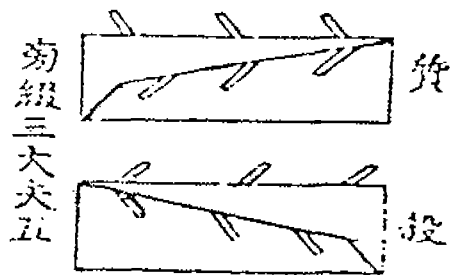


<圖 5-2> 玄冒黼殺 (家禮輯覽圖說)



<圖 5-3> 緇冒經殺 (家禮輯覽圖說)

圖 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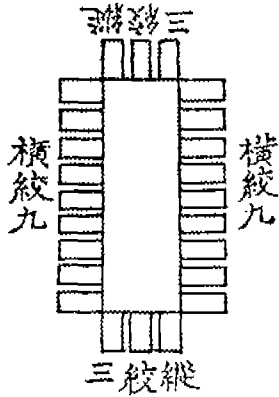
<圖 5-4> 冒圖 (四禮便覽喪圖)

47) 李懋 編, 四禮纂說. 卷3. 張2.

48) 劉寬順, 前掲書. 1991. pp.178-181.

49) 劉寬順, 前掲書. 1995. pp.113-116.

圖 小 斂 衾 絞



〈圖 6-1〉小斂衾絞圖 (四禮便覽喪圖)

는 禭, 沈, 衾, 絞, 上衣, 散衣 등은 같고, 新綿이 韓國에는 더 들어 있다. 小斂衣의 稱도 19稱으로 같으며, 上衣의 方向도 거꾸로 하지 않고, 小斂絞도 〈圖 6-1〉~〈圖 6-3〉과 같이 가로 3, 세로 1로 하는 점이 中國과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따라

서 小斂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中國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大斂에 대하여 보면 中國과 韓國에서 모두 小斂의 다음 날에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大斂衣의 稱이 中國에서는 임금이 100稱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90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大斂具를 禭, 沈, 衾, 絞, 上衣, 散衣로 한다든지, 上衣의 方向을 거꾸로 하지 않는 점, 大斂絞를 가로 5, 세로 3으로 하는 점 (〈圖 7-1〉~〈圖 7-3〉) 등으로 보아 中國과 우리나라가 동일하다. 따라서 大斂에서도 中國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VI. 結 論

이상과 같이 文獻을 中心으로 하여 韓國과 中國 衾衣의 內容을 比較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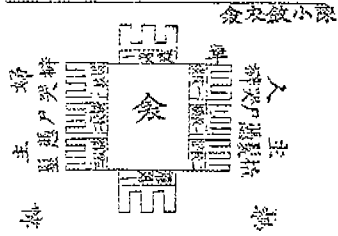
1. 中國에서 履行되던 大帶, 深衣, 袍襖, 汗衫, 袴, 襪, 勒帛, 裘用上, 幅巾, 充耳, 幘目, 履, 握手, 冒,

〈表 3〉斂衣에 關한 比較

內 容		나 拉	韓 國	中 國
小 斂	小斂日		죽은 다음날	죽은 다음날
	小斂具		禭, 沈, 衾, 絞, 上衣, 散衣, 絹, 新綿	禭, 沈, 衾, 絞, 上衣, 散衣, 絹
	小斂衣의 稱		19稱	19稱
	上衣의 方向		거꾸로 하지 않음	左 同
	小斂絞		가로3, 세로1 양끝을 각 3조각으로 만듦	左 同
大 斂	大斂日		小斂의 다음날	左 同
	大斂具		禭, 沈, 衾, 絞, 上衣, 散衣	左 同
	大斂衣의 稱		士-30稱 大夫-50稱 君-90稱	士-30稱 大夫-50稱 君-100稱
	大斂絞		가로5 세로3	左 同 左 同
	上衣의 方向		거꾸로 하지 않음	左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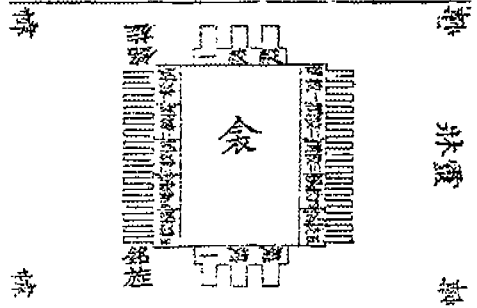
* 위 表는 韓國 것은 國朝五禮儀, 卷7, 張16~19., 喪禮備要, 卷上, 張12~20.,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20~28에 依據했고, 中國 것은 家禮, 卷4, 喪禮1, 張13~17., 文公家禮儀節, 卷4, 張13~20., 儀禮, 卷12, 張4~6., 大明集禮, 卷37, 張3~4, 22~23, 43, 48~49에 依據 作成하였음.

圖 斂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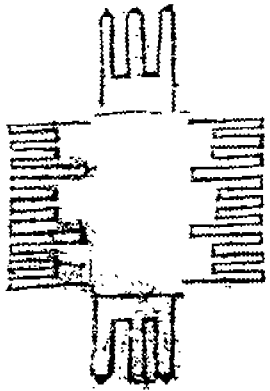
〈圖 6-2〉小斂圖 (家禮圖)

圖 斂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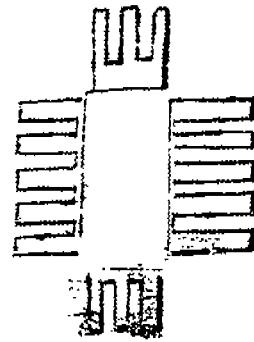
〈圖 7-2〉大斂圖 (家禮圖)

圖 斂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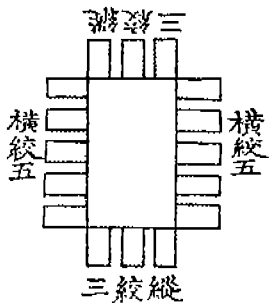
〈圖 6-3〉小斂圖 (文公家禮儀節. 卷4. 張33)

圖 斂 大



〈圖 7-3〉大斂圖 (文公家禮儀節. 卷4. 張33)

圖 紋 衾 斂 大



〈圖 7-1〉大斂衾紋圖 (四禮便覽喪圖)

掩 등에 비하여 韓國의 것은 網巾, 蓆複, 單袴, 小帶, 繩, 舉布 등이 더 많았다.

2. 衣次에 있어서도 中國의 것은 布, 帛, 絹이었는데 비해 韓國의 것은 帛, 紬, 縐, 布 등으로 다양하였다. 色에 있어서는 中國과 韓國이 玄, 纁, 白으로 동일하였다.

3. 치수에 있어서도 中國의 것은 充耳가 대추씨 크기, 幘目이 一尺二寸 또는 一尺五寸, 握手가 길이 一尺二寸 폭 五寸, 冒는 質의 길이가 손까지 오도록 가지런하였고 殺는 三尺이었고, 掩은 廣終幅 五尺인데 비해, 韓國의 것은 幘目の 치수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였고, 冒의 質殺는 각각 七尺이었다.

4. 中國과 韓國 모두 握手는 양 끝에 끈이 있어

손 등에 댄으며, 幘目은 四角의 끈으로 머리 뒤에서 댄었고, 掩은 계각기 끝을 갈랐다. 그리고 帽에 있어서는 殺로 발을 싸서 올라오고 質로 머리를 싸서 내려와 손이 있는 곳에서 가지런하게 하여 全身을 싸는 것이 동일하였다.

5. 斂衣에 있어서 中國의 경우는 小斂衣는 19稱이었고, 大斂衣는 士는 30칭, 大夫는 50稱이었으며 韓國 것은 中國 것과 같았다. 다만 袷만은 中國이 100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0稱이었다. 小斂具에 있어서는 中國의 경우 衾, 絞, 上衣, 散衣, 沈, 褥, 絹이 있었고, 韓國의 경우는 이보다 新綿이 더 들어 있으며, 大斂具 역시 衾, 絞, 上衣, 散衣, 沈, 褥 등으로 中國과 韓國이 다름이 없었다.

이상에서 品目과 文獻이 制限되기는 하였지만, 文獻에 提示된 範圍 내에서 볼 때, 袷衣의 種類, 衣次, 色, 치수, 形態, 使用法, 斂衣에 關한 內容들이 中國의 影響을 받아 대부분 그대로 전해져 實行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한정된 文獻研究에 제한점을 가지며, 앞으로 韓國과 中國의 比較文獻의 擴大, 比較分析內容 範圍의 擴大, 時代別 分析 등의 深層研究를 통하여 韓國과 中國 袷衣의 源流 및 變遷狀況에 대한 多角的이고 廣範圍한 比較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 金長生 輯, 家禮輯覽.
- 申叔舟 等 受命 編, 國朝五禮儀.
- 申義慶 著, 喪禮備要.
- 俞榮 · 尹宜舉 撰, 家禮源流.
- 李選 著, 芝湖集.
- 李宣朝 著, 家禮增解.
- 李漢 著, 星湖僿說.
- 李緯 編, 四禮便覽.
- 李懋 編, 四禮纂說.
- 丘濬 輯, 文公家禮儀節.
- 鄭玄 注, 賈公彥 疏, 儀禮.
- 朱嶽 編, 家禮.
- 太祖 撰, 大明集禮.
- 高福男, “죽음-來世의 永生の 根源 回歸思想”. 論壇. 淑大新報. 1981. 5. 28.
-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 金斗憲, “五服制度의 研究”. 震檀學報. 第5卷. 1936.
-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新丘文化社, 1983.
-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螢雪出版社, 1989.
-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服飾. 第19號. 韓國服飾學會, 1992.
-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8.
- 白英子, 韓國의 服飾. 경춘사, 1996.
-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齋齋, 1985.
- 孫敬子 · 金英淑, 韓國服飾史 資料選集. Ⅲ. 敎文社, 1982.
- 呂重哲, “韓國近代社會의 民俗變化”. 韓國史學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史學研究室, 1080.
- 劉寬順, “우리나라 袷衣에 關한 研究 - 朝鮮朝를 中心으로 -”.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 劉寬順, “韓國 袷衣의 文獻의 考察”. 服飾. 第17號. 韓國服飾學會, 1991.
- 劉寬順, “中國 袷衣의 文獻의 考察”. 服飾. 第25號. 韓國服飾學會, 1995.
- 劉頌玉, “四禮服飾”.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大 出版部, 1983.
- 李樹鳳, 百濟文化圈域의 喪禮風俗과 風水說話研究 - 湖西 · 湖南地方을 中心으로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6.
- 李正玉, “韓國의 四禮服飾에 關한 一研究”. 研究論文集. 第8輯 (自然篇).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4.
- 李鐘恒, “우리 民族의 喪禮와 祭祀에 關한 研

究”. 論文集. 제 9 집(人文科學篇). 國民大學校, 1975.

- 임돈희, 祖上祭禮. 대원사, 1996.
- 임재해, 傳統喪禮. 대원사, 1996.
- 張哲秀, 韓國傳統社會의 冠婚喪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88.
- 趙孝順, 服飾. 대원사, 1996.
- 崔喆 · 韓玉洙 · 白弘基, 太白의 禮俗(下). 江原日報社, 1977.
- 何聯奎, 中國禮俗研究. 臺灣, 中華書局, 中華民國 72.
- 朝鮮總督府中樞院,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 朝鮮印刷(株), 昭和1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terature of Korean and Chinese Shroud

Comparison of Korean shroud with Chinese shroud are as follows.

1. Taetae(大帶), Simeŭi, P'oo, Hansam, Ko, Mal, Nukpaek, Kwatu, Ch'ungi, Pokkōn, Myokmok, Ri, Aksu, Mo and Ōm were used the most in China. However, Mangkōn, Tapho, Tanko, Sotae, Ri and Kōp'o were used more widely in Korea.

2. The cloths of Chinese shroud were p'o, Paek(帛) and Kyun but those of the Korean were Paek, Chu, Chung and P'o. The colors of the Chinese and Korean shroud were Hyun(玄), Hun(纁) and white.

3. The size of the Chinese shroud is as follows. The size of the Ch'ungi was similar to the size of jujube kernel, the length of Myokmok was one Ch'ōk two Ch'on or one Ch'ōk five Ch'on, the length of Aksu was one Ch'ōk two Ch'on and its width was five Ch'on. The chil of Mo reached the hands and the length of Swae was three Ch'ōk and the length of Ōm was five Ch'on. The size of the Korean shroud was the same as Chinese shroud except that the size of Myokmok and the length of Chil and Swae was seven Ch'ōk respectively.

4. In Korean and Chinese shroud, Aksu was tied by the strings at two corners, Myokmok was teid by the strings of four corners. The tip of the Ōm was divided and Mo wrapped the whole body.

5. The clothes of Soryom was nineteen Ch'ing in Korean and Chinese shroud. The clothes of Taeryom in Kun were one hundred Ch'ing in the Chinese and ninety Ch'ing in the Korean shroud. The implement of Soryom were Kum, Kyo, Sangeŭi, Saneŭi, Ch'im, Yok and Kyon in the Chinese shroud and were Kum, Kyo, Sangeŭi, Saneŭi, Ch'im, Yok, Kyon and Sinmyon in the Korean shroud. In the case of the implement of Taeryom, the Chinese shroud had Kum, Kyo, Sangeŭi, Saneŭi, Ch'im and Yok, the same as Korean shroud.